

# 달라진 사회수업 기대되네~

## 대구교육청, 대구 중·고등학교 사회 수업 개선

대구 중·고등학교의 사회 수업이 달라질 전망이다. 대구시교육청 소속의 중등 사회와 4개 교원연구회 합동으로 7일부터 8일에 걸쳐 가야산호텔에서 '2016. 대구 중등 사회와 수업 나눔 워크숍'이 개최됐다.

이 행사는 대구중등윤리도덕연구회, 대구중등역사교육연구회, 대구중등일반사회교육연구회, 대구중등지리교육연구회 등 4개의 교원연구회가 합동으로 주관해 이뤄졌다.

사회와 교원 및 전문직 85여 명이 함께 한자리에 모여 중등 사회와 수업 평가 방법 등 사회와 교육의 발전 방안을 고민했다.

이번 워크숍의 첫날인 7일에는 "2015. 개정 사회와 교육과정의 이해"를 돕는 강의와 현행 사회와 수업의 문제점에 대해 자유토론 시간을 가졌으며 특히 교과별 분인활동으로 사회와 수업 우수사례를 발표, 공유 하며, 학교 현장의 사회와 교사들이 느끼는 다양한 수업의 고민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둘째 날인 8일에는 사회와 성취기준별, 주제별 수업 디자인을 직접 살펴봄으로써, '교육과정·수업·평가·학생부 기록의 일체화'를 위해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이 진행됐다.

이번 '중등 사회와 수업 나눔 워크

숍'은 지난 9월 대구 중등국어교육연구회와 중등한문교육연구회가 주관한 '성취기준'을 주제로 '대구 국어·한문 수업 한마당' 행사에 뒤이어 개최되는 두 번째 교과 단위 수업 나눔 행사이다.

학생부 종합전형이 중시되는 현 입시제에서 어떻게 사회와의 수업을 개선해 나아가야 할지에 대한 고민을 공유하고 방안들을 마련해 보기 위해 사회와 4개 교원연구회가 주관하여 개최하게 된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주관하는 4개 사회와 교원연구회장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통합사회' 교과가 등장함으로써 사회와 교사들의 협력적 관계가 앞으로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 사회와 교사들의 역할을 강화하고 교

과 교사들 간의 허심탄회한 수업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자리가 정말 필요한 시기였다"면서 반박을 나타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사회 과목은 학생들이 사회생활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익히며, 민주 시민으로서 자질을 갖춰 살아갈 수 있도록 배우는 과목인데도 이제까지 학생들에게 어려운 알기 과목으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워크숍에서 교실수업이 강의식 수업에서 토론과 협력 수업으로 학교 현장에서 지리 않는 계기가 될 것이라 내년에는 4개 사회 교과 각각 수업 세미나, 수업 나눔 한마당과 같은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중등 사회와 교원연구회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 생명 소중함 아는 창의융합인재 육성

## 구미교육지원청, '2016 Gumi 당기는 자연환경사랑 주말체험학습'

구미교육지원청(교육장 이동걸)은 10월 8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상북도환경연수원 후구 구미과학관에서 삼도중학교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2016 Gumi 당기는 자연환경사

랑 주말체험학습'이란 주제로 실시하는 이번 행사는 구미교육지원청의 특색시책인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로 감성·인성 키우기' 정착을 위해 지역과 함께하는 인성교육 네트워킹을 구축하여 4회간 실시될 예정이다.

2차 10월 15일(토) 송정초 학생

30명, 3차 10월 22일(토) 선산초 학생 30명, 10월 29일(토) 구운초 학생 30명을 대상으로 환경재민소와 환경체험, 숲놀이, 저탄소 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된다.

체험학습에 참여한 중학생은 "환경재민소와 나만의 저탄소 화분 만들기 등을 통하여 자연환경의 소중함과 식

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으며 재활용 분리수거 등을 꼭 실천하겠다"고 다짐하였다.

이동걸 교육장은 "지역 인성교육네트워킹 행사가 협조해 준 경상북도환경연수원과 구미과학관에 감사드리고 하며, 이번 자연환경사랑 체험학습을 통하여 학생들이 자연환경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환경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를 키우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창의융합인재로 성장할 기 기대한다"고 말했다.

# 대구교육 역사 알리는데 도움되길

## 전 교육감 아들 김형용 씨, 대구교육청에 교육역사자료기증



2016년 10월 4일 초대 민선 故 김연철 교육감의 아들인 김형용 씨가 대구교육청을 방문해 생전 교육감이 소장하던 교육역사자료를 대구교육박물관 설립을 위해 기증했다.

김형용 씨는 아버지인 고(故) 김연철 교육감이 평소 간직해오던 초대 민선 교육감 당선증을 비롯해 졸업증서, 교육공무원 자격증,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 필기 노트 등 17점을 기증하기로 했다.

특히 고등학교와 대학교 수업 필기 노트 3권은 당시의 문화·사회적 전반적인 시대상을 반영하는 주요 자료이다.

노트는 고등학교 재학 시 필기한 여러 권의 노트 약 304p 분량을 묶어

서 만든 1권과 대학교 재학 시 필기한 노트 9권(약 504p)과 11권(약 482p)을 각각 묶어서 만든 2권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영어, 수학, 사회, 생물, 국사 등 다양한 과목에 대한 수업 내용이 필기 되어있어 당시의 수업 모습을 생생히 엿볼 수 있다.

노트는 그냥 보관하지 않고, 직접 책으로 재본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했다.

뉘는 책의 머리말에는 "40여이라는 세월이 지나는 동안 거의 없었지만 남은 일부이다...내용은 보았지만... 훗날 당시의 수업 모습과 사회상을 알아볼 수 있는 자료가 된다고 생각하여 재본하여 듣다"라고 노트를 보관한 목적을 밝히고 있다.

실제로 김연철 전 교육감의 고등학교 시절은 광복 직후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이 매우 어려웠던 시기로 경제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았던 당시의 경제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김연철 전 교육감은 선산고, 경북대 수학교육과를 졸업하고 1967년 교직에 입문, 대구·경북에서 부교과와 장학사, 교육국장, 대구광역시부교육감을 거쳐 1993~2001년 제 4대(민선초대)·5대 대구교육감을 지냈다.

전 교육감의 아들인 김형용 씨는 "평소 대구교육을 위해 열정적으로 일하신 아버지의 유지를 받들어 대구교육청에 추진하고 있는 대구교육박물관 설립에 작은 보탬이라도 되고 싶어 이번 기증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기증 자료는 전문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수장고에 보관되며, 추후 대구교육박물관의 건립 시 전자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한편 대구교육청은 올해 대구교육의 여재와 오늘을 조망하고 교육역사를 정리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교육역사자료 수집에 주력해 나갔으며 현재까지 8,000점이 넘는 교육자료를 수집하고 있다. 이를 소장할 교육박물관은 2018년을 목표로 건립할 예정이다.

우동기 대구시 교육감은 "김연철 민선초대 교육감이 소장하신 교육역사 자료들을 기증해 주신데 감사드리며, 대구시민과 학생들을 위해 기증 있게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한해 5만8천여명 사망**  
**매년 1조7천억원 진료비 손실**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협하는 흡연폐해!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보통대장을 상실한 관리하여 할 보험자로서  
흡연폐해 심각성을 알리고  
보통대장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알고 계십니까?

세계보건기구(WHO)는 흡연을 세계 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칭

OECD주요국 담배가격·흡연율 비교

담배가격	흡연율
대한민국 2,500원	흡연율 23.0%
영국 1,500원	흡연율 13.1%
스웨덴 8,200원	흡연율 13.8%
일본 9,400원	흡연율 12.8%
네덜란드 8,400원	흡연율 12.0%
프랑스 9,400원	흡연율 10.8%
미국 11,300원	흡연율 12.3%
아일랜드 14,300원	흡연율 11.0%

담배는 4800여종의 화학물질과 69종의 발암물질로 구성  
비흡연자 대비 흡연자의 암발생 위험이 2.3배~6.5배 높음  
4대성질환(뇌졸중, 유산, 기형아 출산위험, 영유아 돌연사 위험 증가)  
(특소나트륨) 담배 의존성과 질병사망 위험도가 더욱 증가  
중독성 1위 나트륨은 체온, 호기안, 마취화성도 중독성 높음

각국담배 광고문구 비교

한국	호주	유엔연합	우루과이
RAISON MILK RS	SMOKING CAUSES MOUTH CANCER	TOBACCO IS TOXIC AND ADDICTIVE	FUMANDO SE PUERE MORIR



# 소중한 만남, 아름다운 동행

## 상주교육지원청, 화랑문화제 개최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근)은 "학생들에게 취미 및 특기 표현의 장을 제공하여 소질·적성을 계발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 시켜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상주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4회 상주지역 화랑문화제를 7-9일 까지 개최했다.

4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지역 학생축제인 화랑문화제는 '참된 사람 상주교육 실현을 통한 상주지역 인재육성'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주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잔치로 변화하여 학생들에게 마음껏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해 상주교육 지원청이 이루고자 하는 학생상을 꿈꾸게 하고자 한다.

특히 문예, 음악, 미술 등 3개 영역에 대해 경연대회를 통한 학생들

의 기량을 평가하기보다는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이야기축제의 연계한 초·중·고등학생들의 10월 7일 오후 12시 40분부터 초등부에 화랑초의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17개 학교에 320명이 참석하여 공연을 시작으로 9일에는 중·고등부에서는 처음으로 학부모연합회 회원으로 구성된 '사랑의 난타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13개에서 220명의 학생이 참가한 청소년 페스티벌을 열었고,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이야기축제' 기간동안 초·중·고 학생들의 120여 작품을 전시하고,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37가지 체험마당을 통해 상주시민과 학부모들에게 한결을 더 다가가실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하게 되었다.

3가지 체험마당을 살펴보면, 첫째 유아체험 마당에는 10월 7일-9일에 걸쳐 민요에서 5세를 대상으로 '팜팜 만들기, 솟자루 만들기, 슬러시, 포도문, 소원나무 꾸미기, 파나 맞추기' 둘째, 독서를 통한 '북(Book)작 북(Book)작 시·잠·미 나들이'란 주제속에 10월 7-9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 셋째 '가상현실(VR)에서 함께 놀자'이란 주제속에 함께 즐기며 스스로 생각하는 새로운 가상현실 세계 체험을 통해 창의력 향상능력을 기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있다.

권오근 교육장은 "이번 상주시 이야기 축제와 함께 하는 제4회 화랑문화제는 상주시민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참여하여 평소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갖고 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문예·예술 활동을 통해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우정을 나누어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 대구수목원, 지역 희귀식물 담은 책자 발간

대구수목원은 우리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 중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제시한 국제적 평가 기준에 따라 희귀식물 173종을 선별한 '대구·경북의 희귀식물' 책자를 발간하여 시민들에게 무료로 배부한다.

급변해가는 환경과 기후변화로 인해 우리 곁에서 자취를 감추어가고 있는 지역의 소중한 희귀식물을 국제적 평가 기준인 5개의 등급별로 수록하여, 시민들이 우리 주변의 나무와

풀 등에 관심을 기울일 수 있도록 했다.

대구수목원은 책자 제작을 위해 지난 1년간 수많은 식물 관련 고서와 문헌, 자료 등을 토대로 수록내용을 조사했으며, 어디에서 자라고 있는지, 언제쯤 꽃을 피우는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분포지도 뿐만 아니라 식물들의 유래를 함께 수록했다.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했다. 책자 속의 내용을 보면 멸종위기종인 구름벚나무조, 위기종 포리발발리, 취악종 세뿔나무

꽃 등 희귀하고 중요한 우리 지역의 식물에 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대구·경북의 희귀식물' 책자는 수목원관리사무소 2층 교육연구실에서 시민들에게 선착순 무료 배부하며, 자세한 사항은 수목원관리사무소(053-640-4100)로 문의하면 된다.

대구시 이영철 수목원관리사무소장은 "대구·경북의 희귀식물' 책자를 통해 시민들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식물들을 알고, 자선과 함께 증진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상주시

상주교육지원청, 화랑문화제 개최

경상북도 상주교육지원청(교육장 권오근)은 "학생들에게 취미 및 특기 표현의 장을 제공하여 소질·적성을 계발하고, 사고력과 창의력을 향상 시켜 새로운 생각과 참된 마음을 지닌 상주지역 인재 육성"을 위하여 제4회 상주지역 화랑문화제를 7-9일 까지 개최했다.

44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대표적인 지역 학생축제인 화랑문화제는 '참된 사람 상주교육 실현을 통한 상주지역 인재육성'에 크게 이바지하여 왔으나, 올해부터는 주민과 함께 하는 한마당 잔치로 변화하여 학생들에게 마음껏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통해 상주교육 지원청이 이루고자 하는 학생상을 꿈꾸게 하고자 한다.

특히 문예, 음악, 미술 등 3개 영역에 대해 경연대회를 통한 학생들의 기량을 평가하기보다는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이야기축제의 연계한 초·중·고등학생들의 10월 7일 오후 12시 40분부터 초등부에 화랑초의 '오케스트라'를 시작으로 17개 학교에 320명이 참석하여 공연을 시작으로 9일에는 중·고등부에서는 처음으로 학부모연합회 회원으로 구성된 '사랑의 난타팀'의 공연을 시작으로 13개에서 220명의 학생이 참가한 청소년 페스티벌을 열었고, 상주시에서 주관하는 '이야기축제' 기간동안 초·중·고 학생들의 120여 작품을 전시하고, 더불어 시민과 함께하는 37가지 체험마당을 통해 상주시민과 학부모들에게 한결을 더 다가가실 수 있는 기회로 마련하게 되었다.

3가지 체험마당을 살펴보면, 첫째 유아체험 마당에는 10월 7일-9일에 걸쳐 민요에서 5세를 대상으로 '팜팜 만들기, 솟자루 만들기, 슬러시, 포도문, 소원나무 꾸미기, 파나 맞추기' 둘째, 독서를 통한 '북(Book)작 북(Book)작 시·잠·미 나들이'란 주제속에 10월 7-9일까지 다양한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마지막으 셋째 '가상현실(VR)에서 함께 놀자'이란 주제속에 함께 즐기며 스스로 생각하는 새로운 가상현실 세계 체험을 통해 창의력 향상능력을 기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있다.

권오근 교육장은 "이번 상주시 이야기 축제와 함께 하는 제4회 화랑문화제는 상주시민과 함께 우리 학생들의 꿈과 끼를 발휘할 수 있는 기회를 통해 학교교육의 정상화를 도모하고 최고보다 최선을 다하는 태도로 참여하여 평소 특기·적성 교육을 통해 갖고 있던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문예·예술 활동을 통해 다른 학교 학생들과도 우정을 나누어 즐겁고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